

# 逆오일쇼크, 우려할 것 없다.

## 油価下落, 失보다 得이 커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잇달아 열린 OPEC 총회가 石油供給過剩解消와 油價防禦를 위한 구체적인 対策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렬됨에 따라 石油價格이 下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最近 一部에서는 油價下落으로 야기될 逆오일쇼크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油價下落이 世界經濟에 미칠 肯定的인 側面을 過少評價하여 油價下落現象을 오히려 우려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經濟專門家들은 世界經濟에 있어 油價下落의 得이 失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데 見解를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그 得失의 정도는 油價의 下落幅과 進行速度 그리고 各國의 經濟事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國際金融危機 초래가능성 적어** 油價下落의 惡影響, 이른바 逆오일쇼크란 最近의 石油動向이 世界經濟에 미치게 될 否定的인 要素를 강조하여 표현한 新造語로서 日本의 立場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골자는 ① 石油輸出國들의 石油輸出收入減少로 인해 油價의 供給量이 크게 줄어들어 國際金融危機를 초래하고, ② 石油輸入國들의 對產油國輸出이 減少하며, ③ 石油消費國들의 代替에너지開發 및 石油消費節約努力이 이완된다는 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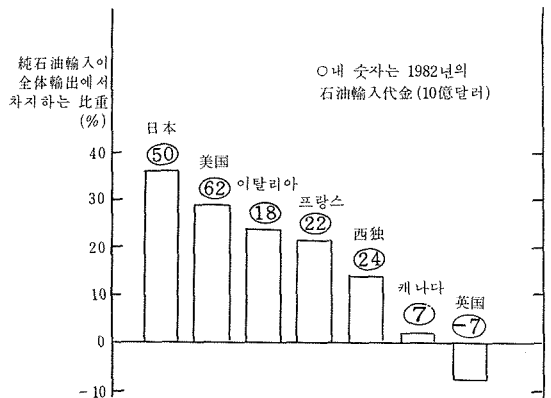
이를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우선 國際金融面에 있어서는 油價下落으로 油價의 流入이 다소 減少되겠지만, 반면에 石油輸入代錢이 輕減된 先進國으로부터의 資金流入이 增大되고 또한 主借入國인 非產油開途國의 外換需要가 減少될 것이기 때문에 一部專門家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國際金融問題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產油國인 동시에 高債務國인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危機를 맞게 될 것이나, IMF, IBRD 등 國際機構의 조정으로 國際金融市場에의 供給효과는 극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油價가 暴落할 경우 國際金融市場의 혼란과 國際金利의 小幅上昇이 예상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現象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對產油國輸出減少도 問題되지 않아** 產油國의 外換事情惡化로 石油輸入國들의 對產油國輸出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對產油國 輸出國의 立場에서 純稼得額만 비교할 경우 輸出減少보다 石油輸入代錢 輕減분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石油代替에너지 開發 및 石油消費節約努力의 弱化現象은 비교적 長期間에 걸쳐 나타나므로 當面한 문제로는 볼 수 없다.

**石油輸入國의 經常收支 改善에 기여** 따라서 油價下落은 惡影響보다 世界經濟, 특히 石油輸入國의 景氣回復에 크게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는 石油輸入國들의 石油輸入額이 줄어들고, 經常收支가 改善

〈表-1〉 主要國의 石油輸入代錢(1982年)



된다. 점을 들 수 있다. 모간銀行은 油價가 배럴당 6 달러 下落할 경우 美国 및 日本의 石油輸入額이 각각 120億달러와 100億달러씩 輕減되는 등 先進国 全體의 年間 石油輸入代錢 減少額은 약 400億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物價安定에도 기여** 그 다음의 油價下落后에 따른 物價上昇의 鈍化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原油價格의 下落后이 石油類製品의 價格에 즉각 반영되면서 石油類製品을 原資材로 사용하는 모든 製品의 價格을 下落后시키게 된다. Amex 銀行(American Express Bank)은 油價가 배럴당 25달러까지 下落后하면 1983年中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全體의 物價上昇率이 油價下落后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의 예상치인 6.75%보다 1% 포인트 낮은 5.7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金利下落后도 期待되어** 長期的으로는 物價上昇의 鈍化와 더불어 利率도 下落后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튼計量經濟研究所(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 WFEA)는 油價가 배럴당 5 달러 下落后할 때 1983年中 美国의 物價上昇率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1.2% 포인트 떨어지고, 財務省証券(3個月物)의 金利도 0.7%포인트 낮아지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物價上昇의 鈍化와 金利의 下落后現象은 적어도 198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經濟成長率도 더 높아질 듯** 또한 油價下落后으로 世界經濟의 回復이 더욱 促進될 것이다. 그 理由로는 ① 物價上昇鈍化에 따른 實質所得의 增大와 金利의 下落后으로 消費 및 投資가 增大되고 ② 經常收支의 改善과 物價安定을 바탕으로 각

国政府가 보다 적극적인 景氣浮揚策을 施行할 수 있으며, ③ 全般的인 世界景氣의 回復과 더불어 貿易도 擴大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經濟成長에 관하여 Amex銀行은 油價가 배럴당 25달러까지 下落后할 때 1983年中 OECD全體의 經濟成長率이 당초 展望值인 1.5%에서 2.25%로 0.7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배럴당 5 달러의 油價下落后을 가정하여 算出된 WFEA의 展望值를 보면, 1983年中 美国經濟에 있어 經濟成長率이 0.6%포인트 더 높아지고, 약 40萬名의 新規雇傭이 創出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우기 債務国이고 주로 1次產品을 輸出하는 石油輸入開途国은 以上과 같은 效果外에도 ① 國際金利의 下落后으로 外債에 대한 利子負擔이 줄어든다는 점, ② 先進国들의 景氣回復이 促進되어 1次產品輸出收入이 늘어난다는 점 등의 利益을 享受하게 될 것이다.

**油價下落后, 우리經濟에도 有利해** 이러한 油價下落后의 利点에도 불구하고 對中東進出의 比重이 크고 追加外資導入이 必要한 우리 나라로서는 逆오일쇼크에 지대한 關心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建設進出面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對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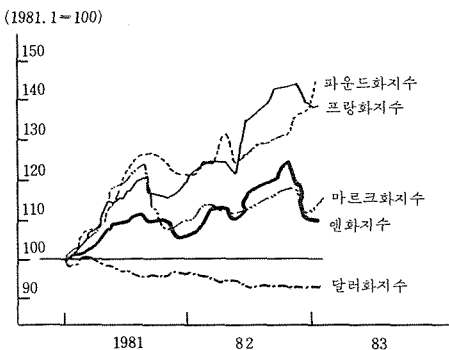
〈表-3〉 世界의 石油生産

(單位: 千배럴 / 日)

	1979	1980	1981	前年比增減率(%)	1982	82年構成比(%)	
						世界全体	自由世界
O P E C	30,782	27,126	23,262	19,202	-17.5	34.7	47.4
사우디	9,526	9,955	9,846	6,527	-33.7	11.8	16.1
이란	3,057	1,547	1,309	1,968	50.3	3.6	4.9
쿠웨이트	2,512	1,658	1,137	843	-25.9	1.5	2.1
이라크	3,431	2,708	902	964	6.9	1.7	2.4
나이지리아	2,304	2,066	1,429	1,285	-10.1	2.3	3.2
리비아	2,064	1,793	1,090	1,094	0.4	2.0	2.7
非OPEC自由世界	19,790	20,804	20,348	21,328	4.8	38.5	52.6
美 国	10,208	10,283	9,592	9,639	0.5	17.4	23.8
멕시코	1,618	2,136	2,564	2,972	15.9	5.4	7.3
英 国	1,598	1,651	1,795	2,058	14.7	3.7	5.1
自由世界合計	50,572	47,930	43,610	40,530	-7.1	73.2	100.0
共產圈	14,264	14,590	14,716	14,809	0.6	26.8	
蘇 聯	11,800	12,143	12,230	12,298	0.6	22.2	
中 共	2,123	2,119	2,033	2,042	0.4	3.7	
世界全体	64,836	62,520	58,325	55,339	-5.1	100.0	

〈資料〉 Petroleum Press Bureau Ltd, Petroleum Economist, Jan. 1983

〈表-2〉 主要通貨表示別 原油價格指數 推移



東建設輸出中 72%를 OPEC國家中 資金事情이 가장 양호한 사우디 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經濟가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國際金融市場의 혼란에 따른 國際金利의 上昇은 다만 일시적인 現象에 불과한 바, 결국 物價上昇鈍化로 인한 國際金利의 下落을 통하여 外債利子支給負擔이 오히려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全體적으로 보아 油價下落은 우리經濟에도 不利하다기 보다는 有利한 面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石油代替에너지 開發努力은 계속되어야** 비록 油

價가 下落한다 할지라도 石油代替에너지開發 및 石油消費節約努力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石油消費를 增大시킨다면 80年代後半으로 예상되는 石油供給不足期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70年代에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石油價格이 下落할 경우 石油輸入稅를 부과하여 石油消費増大를 억제하는 동시에 그 資金을 石油代替에너지開發에 投資하려는 美國등 先進國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

## OPEC聲明 全文

### - 2월14일 폐막된 임시총회 -

石油수출국기구(OPEC)가 14일 런던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제67차 OPEC 긴급會議가 83년 3월 14일 英國의 런던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야하야·디코 나이지리아 石油에너지담당 대통령보좌관겸 나이지리아 수석대표를 만장일치로 議長에 재선하고 구스타보·젤린도 벨라스코 에콰도르 광물 에너지相겸 에콰도르 수석대표를 교체議長으로 재선했다.

OPEC회원국 대표들은 石油市場의 안정을 위해 수일간 油價 產油量의 상한선 및 國別쿼터에 관한 협의를 벌여 ① 아라비안 경질유의 공시가격(OPEC기준油價)을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하고 ② OPEC내 각종 원유등급의 가격차를 82년 3월 빈에서 열렸던 제63차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나이지리아產 원유들에 대한 차등은 기준 유가보다 1달러 높게 하는 잠정적인 예의를 두고 ③ OPEC 전체의 총산유량상한선을 하루 1천7백50만 배럴로 설정하여 각 회원국의 產油量쿼터를 배

정하나 시장수요의 균형유지를 위한 석유공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쿼터는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油價의 할인을 해서는 안되며 油價구조를 해칠 가격수준으로 세계시장에 석유를 덤핑해서도 안된다.

이 회의는 이번에 결정된 油價가 최저가격이며 국가별 產油量쿼터가 상한선임을 합의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이란 대표는 국가별 產油量쿼터에는 수락했으나 油價인하결정에 관해서는 그 입장을 유보했다.

이 회의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非OPEC產油國들과의 협력노력을 환영했다.

이 회의는 OPEC가 석유시장의 안정, 소비국과 산유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주요책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모든 OPEC 자료들은 따라서 OPEC의 단결과 석유시장보호 및 세계경제와 각 회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끝으로 英國政府가 이번 회의에 협조해 준 데 감사를 표한다.